의생명과학분야 장학생 워크숍 개최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멜론홀에서 열린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및 대학교 장학생 워크숍.

아산재단은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멜론홀에서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및 대학교 장학생과 동문 간 교류활동을 위한 의생명과학분야 장학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학원 장학생 30명, 대학교 장학생 10명, 동문 25명 등 70명이 참석해 장학생과 동문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장학생과 동문의 연구발표 세션을 마련했다. 2026년 대학원 장학생인 김은하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박사과정 학생과 손연주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연구활동을 발표하고, 재단 장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세션도 별도로 마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장학생 동문을 대표해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이사가 의생명과학분야 트렌드와 관련 산업 동향을 발표하며 의사과학자의 활동과 비전을 전했다.

특별 강연으로 2024년 아산의학상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정인경 KAIST 생명과학과 교수가 의생명과학분야 연구자로서의 경험과 연구활동을 공유하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연 후에는 장학생과 동문 간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설립 초기부터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해온 아산재단은 우리나라 의생명과학 분야를 이끌어갈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2024년부터는 대학원에서 대학까지 범위를 넓혔다. 재단은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장학생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글 **편집부**